

광양시, 북미 지방도시와 국제 교류영역 확대

캐나다 랭리타운십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정인화 시장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 교류”

광양시가 캐나다 지방도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며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섰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 랭리타운십시를 방문, 4일(현지 시간) 랭리이벤트센터에서 랭리타운십시와 국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는 광양시에서 정인화 시장과 최대원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랭리타운십시에서는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십 시장, 랭리타운십 시의원, 관련 기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상호이해

와 우정을 증진하고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해 나가게 된다. 특히 문화, 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공동 발전 사업 발굴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양시가 북미지역으로 교류 영역을 확장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와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호도시가 된 랭리타운십은 인구 15만명의 제조, 물류, 농업, 교육산업이 고

르게 발달된 도시로, 메트로 밴쿠버 21개 도시 중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최근에는 교육,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랭리타운십시와 우호도시 체결로 국제 자매·우호도시는 10개국 18개 도시로 확대됐다. 시는 우호도시 협약외에도 랭리이벤트센터 내 대규모 도시홍보 행사,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KOTRO밴쿠버 무역관 방문, 랭리타운십 상공회의소 임원진 면담, 현지 한인 마켓 체인 방문, 특산물 수출협력 논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벌였다. 한편 랭리타운십시 방문단 일행은 협약체결에 앞서 캐나다 최초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가평석’을 찾아 헌화·참배하며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광양시 방문단은 캐나다 랭리타운십시를 방문, 캐나다 최초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가평석’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이 한국관광공사가 주목한 로컬 체험관광 콘텐츠의 대표 상품으로 소개되며, 순천의 생태철학을 담은 특화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 전국서 주목

한국관광공사 ‘로컬체험관광 콘텐츠’ 대표 상품 소개 ‘자연과 사람 공존’ 생태철학 담은 프로그램 자리매김

순천시의 생태자원을 담은 지역 특화 체험이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이 한국관광공사가 주목한 로컬 체험관광 콘텐츠의 대표 상품으로 소개되며, 순천의 생태철학을 담은 특

화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로컬 특색 콘텐츠를 발굴·홍보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이 대표 상품으로 선정돼 전국에 소개됐다. 흑두루미 탐조여행은 단순한 철새 관찰을 넘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순천의 도시 철학을 체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를 배경으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 흑두루미 서식지를 관찰하고, 일몰을 감상하며 순천만의 생태적 감수성, 자연이 주는 평화 회복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흑두루미의 귀환은 단순한 생태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신뢰하며 조화를 이루는 계절의 약속이다”며 “탐조여행을 통해 순천이 추구하는 생태철학과 치유도시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는 해마다 76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오며,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순천시는 철새 서식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의 균형을 위해 ‘람사르습지 도시’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 올해 ‘구석구석 문화배달’ 마무리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호응…“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구례군은 최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시즌2’ 행사를 개최, 올해 ‘구석구석 문화배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구례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사)큰산사람들이 주관해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가 일상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를 마련해 행사 시작 전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오지근·박나리 작가의 ‘자연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황토흙으로 ‘흙도깨비’를 만드는 프로

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노란의 취향이 담긴 책을 소개하는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펼쳐져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다. 공연에는 가수 하림이 무대에 올라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과 강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노래를 선보였으며, 팔팔한 늦가을 날씨에도 많은 관객들이 앵콜을 외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민들이 매월 마지막 주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

곡성,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 운영 21일까지 신청 접수…연말까지 진행

곡성군은 최근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다량 발생함에 따라 이들 농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파쇄·처리, 불법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운영 첫날인 지난 3일에는 파쇄지원단 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전가지 파쇄기 작동 요령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곡면 명산리 현장에서 실제 파쇄 작업 시연과 장비 운영 요령 등을 공유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운영한 상반기 파쇄지원단은 70농가, 11.94ha 면적에 현장

파쇄 지원을 했으며, 특히 고령농가나 거동이 불편한 농가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연남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가에서 부산물을 처리하기 어려웠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파쇄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렬 기자 holbuj@gwangnam.co.kr

장흥, 빈집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마련

정부 공모사업 활용…국비 지원사업 연계

장흥군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빈집정비 및 활용TF회의’를 열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활용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은 그동안 예산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TF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다. 군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관리대상’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구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보성군의 대표 특산물 ‘보성녹차’가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후식으로 제공돼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성녹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

‘보성녹차’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 올라 식단 메뉴 중 유일하게 지명 표기…‘녹차수도’ 위상 확인

보성군의 대표 특산물 ‘보성녹차’가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후식으로 제공돼 주목을 받았다. 만찬에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삼색 매자과와 삼색 과일이 제공됐고, 이어 ‘보성녹차’가 중국 전통 디저트인 지마구와 함께 제공돼 만찬의 마무리를 품격 있게 장식했다. 특히 식단에서 ‘보성녹차’는 유일하게 지명이 표기된 지역 브랜드로, ‘녹차수도’로 보성의 이름이 세계 정상들의 식탁에 오르며 글로벌 명차로서의 상징이 됐다. ‘보성녹차’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지하 암반층 위에 쌓인 비옥한 토양과 잦은 안개 등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 항암효과·피부 보습·노화 방지 등 다양한 유효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친환경 인증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보성은 ‘동국여지승람’에 차 재배지로 기록될 만큼 대한민국 전통 차 자생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과거 왕실에 진상되던 명차로서의 명성 또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녹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보성녹차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한국의 차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